

# 순천역 인근 중심시가지형 도심지로 바뀐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 전국 유일 선정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다양한 조형물·AI 콘텐츠 조성



순천역 인근이 중심시가지형 도심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시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통해 원도심활성화와 상권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번 순천역세권 주변 20만㎡를 대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시에 '스마트시티사업'에도 선정돼 5년간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4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스마트시티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해 총 34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쇠퇴 도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공모를 시작하고 지난 2월 서류심사 이외의 현장 평가, 발표평가 등 총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이어 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시는 날로 쇠퇴해 가는 순천역세권의 복원을 위해 공모 사업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중심의 집중검토회의와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설정부터

자원조사, 비전 및 목표 설정, 단위사업 발굴 등 모든 과정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했다

응모에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실행 타당성 조사표 작성도 외부 용역 없이 주민과 활동가, 공무원 등이 함께 고민해 완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빠른 실행이 가능해 심사단으로부터 특별한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번 '스마트시티분야' 사업은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스마트 로봇을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설치하는 '생태관광정보 서비스'와 동천변 국가정원플랫폼에 Eco 소망

나루 조형물과 AI 콘텐츠를 설치해 추억이 담긴 사진과 소원을 소망나무에 보관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타임캡슐 서비스', 관광객들이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AR Street '스마트 관광안내소'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전남도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협의체 중심의 민·관·학·연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다"며 "기획에서 구축, 시범운영, 고도화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에 시작한 향동, 중앙동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2017년 장전동 일대와 저전동 지역 2곳이 예산 497억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돼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매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멸종위기종 사막여우 새끼 2마리 출산

순천만정원 야생동물원  
6월 초 관람객에 공개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야생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가 새끼 2마리(사진)를 출산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끼를 낳은 사막여우는 5년생이며 지난달 10일 자연분만으로 암컷 두 마리를 출산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사막여우가 불안한 환경에서 출산하면 젖을 먹이지 않거나 새끼를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한달이 지나 안정을 찾은 뒤 외부에 출산 소식을 알렸다.

현재 새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어미조차 잘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만국가정원은 5월 중순부터 적응훈련을 거쳐 6월 초에 관람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막여우의 임신 기간은 50일 내외인데 매우 예민해서 출산 이후 새끼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 격리 분반실을 확보하고 고단백 특식

을 주는 등 출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사막여우는 생쥐뿔페리의 '어린 왕자'나 애니메이션 '보로로'의 친구 '에디'로 나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 야생동물원은 사막여우와 알다브라 육지거북, 물범, 홍학 등 62종 10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NH농협 순천시지부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농협순천시지부는 최근 농협 순천미인봉사단과 순천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송옥임) 회원 등 25명이 함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순천시 서면 건천마을 A씨(87) 집을 찾은 봉사단은 도배와 장판, 노후화된 전등, 싱크대를 교체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건천마을 주민들은 "집이 오래되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산뜻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희천 농협순천시지부 지부장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서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순천시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선정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지역·민간의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문화교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문체부는 2019년 사업 공모를 통해 기초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경기 이천과 강원 영월은 2018년 사업성과가 우수해 지속사업으로 재선정됐고, 순천시(수행기관:순천대 두루미과학예술센터)를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순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호교류 도시인 프랑스 낭트시에서 '순천의 생태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예술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지역 고유의 우수한 생태문화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 순천방문의 해와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준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등을 주제로 한-프 창의문화축제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교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6년만에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순천시는 6년 만에 택시요금을 20일로 기해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송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전남도택시조합에서 지난해 3월 전남도에 건의해 1년 동안 검증기간을 거쳐 각 시군에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안)을 시달했으며, 각 분야에서 참여한 택시 운임·요금 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순천시 고시에 따르면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적용 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운임도 15km/h이

하 운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적용시간이 짧아졌다.

광양이나 여수 등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계의 할증'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하고, 읍·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기존 40%에서 35%로 조정했으며, 시계외와 복합할증 모두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순천에서 여수, 광양 지역 등 운행 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미터기 미사용 운행에 따른 부당 요금 징수 등 해묵은 논쟁들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